Table of contents

1 벤치 새 단장하기 2

1 벤치 새 단장하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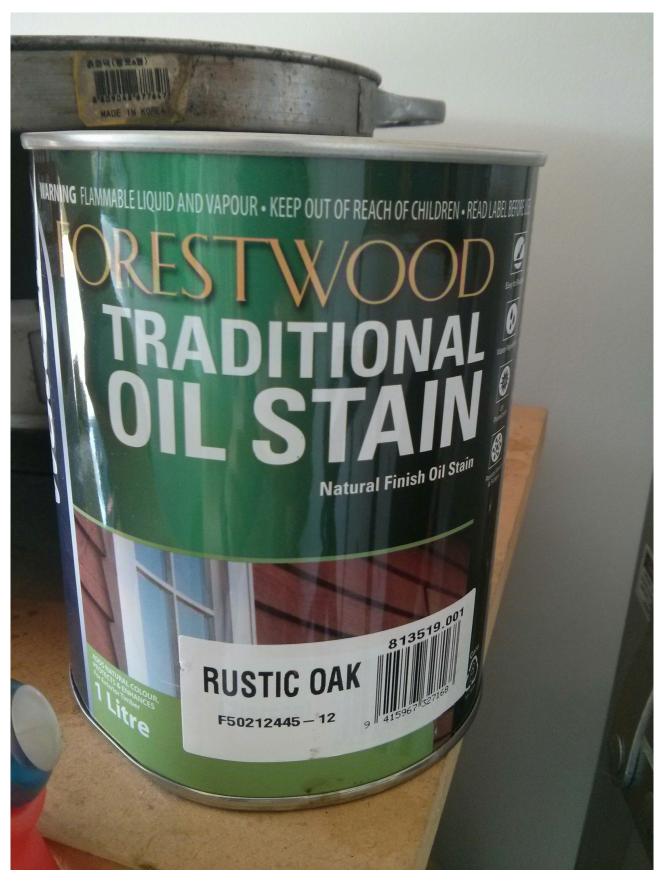
1년여전쯤 늙은 초짜 목수 친구가 만들어준 자그마한 벤치가 많이 상해버렸다. 현관문앞에 놓여져서 비에 노출되어 있고, un-treated된 소나무 재질이여서 군데 군데 거멓게 물들고 그랬다. 와이프가 stain하자고 해서, 나무 청소하는 세제와 oil 베이스의 stain을 사와서 작업했다.



조그마한 플라스틱 통과 설겆이할 때 쓰는 스폰지를 가지고 위의 용액(일정량의 물을 넣어서 희석 후 사용)을 가지고 박박 문지른 후 물로 깨끗히 세척해서 말렸다. 물론 고무장갑을 껴서 손을 보호해야 할 정도로 강한 세제이니 주의해야 한다. 하수구 쪽 흘러가는 쪽에 아직도 허연 자국이 남아있는 걸 보니 장난 아니게 독한 듯 싶다.



더러웠던 벤치가 나름 깨끗해졌다. 군데 군데 나무 섬유질이 일어나 있었다. 아마도 너무 세게 문지른 부분인 거 같다. 그리고 세제도 나무 섬유질을 약간 녹여가면서 세척하는 방식으로 보인다.



요거트 통에 조금씩 따라가면서 페인트용 붓으로 골고루 칠하고 그늘에 말려 두었다. 근데 와이프가 색이 너무 진하다고 한다. 다음엔 더 연할 걸로 해야겠다.



나름 이뻐졌다.